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되새기는 계기 마련

군산시, '3.5만세운동길' 조성사업 완료... 군산항일 역사 이야기 담아

군산시가 지난 6월부터 구암동 3.1 운동 기념관 일원에 만들어진 '3.5만세운동길'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3.5만세운동길'은 한강아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3.5만세운동의 항일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위

치는 세종아파트부터 구암동산까지의 진입로 약 230m 구간이며, 이곳의 웅벽, 석축, 펜스 등에 항일단체 운동을 형상화한 조형벽화와 조형물 등을 설치해 군산항일 역사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시에서는 3.5만세운동길을 통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이름 없이 스러

져간 선조들의 마음을 되새기고, 군산이 간직한 아픈 근대사는 '일제에 의한 수탈의 역사'만이 아닌 '항일 항쟁의 역사'가 함께 있었음을 알리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3.5만세운동, 옥구 농민항쟁, 임피 만세운동, 영병학교, 구암교회

등 군산 항일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장소 등을 콘텐츠로 활용해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군산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군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원광대학교 프라이사업단은 '2017 PRIME사업 성과포럼 및 제2차 협의회 총회'를 최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었다

PRIME사업 5개 영역 성과 공유의 장 마련

원광대, 2017 PRIME사업 성과포럼·제2차 협의회 총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프라이사업단은 '2017 PRIME사업 성과포럼 및 제2차 협의회 총회'를 최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었다.

이번 성과포럼 및 총회는 2차년도 회장교인 원광대가 전국 21개 프라이사업 선정대학을 대표해 개최했으며, 김영곤 교육부 대학지원관 국장, 류동민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을 비롯해 사회수요 선도대학 9개교, 창조조기반 선도대학 12개교 등 총 21개 대학에서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2017 PRIME사업 성과포럼은 △하사 구조개편 및 지원(P) △교육과정 혁신(R) △진로 및 취업지원(W) △교육환경개선(M) 영역에 대해 각 대학 사업단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

다.

특히 원광대는 학사구조개편 및 지원(P) 분야에 정성태 부단장, 교육환경개선(M) 분야에 정정권 부총장 겸 협의회장이 패널로 참가해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를 발표했다.

정정권 부총장은 "원광대는 타 대학과 달리 교비를 2배 이상 투자해 PRIME관 신축사업(지하층/지상5층 규모)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장간 4.0사업과 WK-MOOC 스튜디오 구축 등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행사 2일 차에 진행된 재학생 프라이 참여사례 발표(E)에서는 육종가의 꿈"을 주제로 발표한 원예산업학과 강유미 학생이 PRIME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

여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강유미 학생은 "포럼에 참여해 타 대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PRIME사업을 만나 꿈을 찾고 성과포럼에서 내 꿈을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좋은 기회였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7년 2월 2차년도 PRIME사업협의회 회장교에 선출된 원광대는 이번 성과포럼 및 총회를 마지막으로 회장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3차년도 회장교는 인재대가 선출되고, 부회장교는 순천향대, 영남대, 동신대, 이화여대, 감사교는 숙명여대가 맡게 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박광수 교수 한국종교학회 차기 회장 선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박광수(종교문제연구소장) 교수가 한국종교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종교학회는 국내 종교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서 종교연구에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박광수 교수는 오랫동안 한국종교학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근래에는 부회장을 맡아 학회 활동에 힘써왔다.

박광수 교수는 "향후 한국종교학회 및 세계종교학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종교의 역할과 종교에 대한 토대연구 등 다양한 학문적 발전을 위해 힘써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시내버스 승강장 동장군 쉼터 설치

익산시(시장 정현윤)는 동절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에 '동장군 쉼터'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존 버스 유계승강장에 비닐 커버를 씌워 바람을 피하게 하는 방식과 승강장 옆에 투명비닐로 된 바람막이 텐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평소 이용객이 많은 원대병원 승강장 2개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남부시점 주변 승강장 2개소 및 시청 민원실 앞 등 총 5개소 승강장에 동장군 쉼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 시민들이 잠시나마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동장군 쉼터를 마련하게 됐다"며 "호응을 좋을 시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아움을 바란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 군산시, '착한가게' 4개소 동시 가입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영란, 양상호)는 기부를 통한 나눔에 새롭게 동참한 지역 내 착한가게 4개소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참여한 착한가게는 솔현주방가(대표 이흥년), 다올식당(대표 장영순), 으름갈비(대표 문귀숙), 우성생크(대표 강유동) 등 4개소이며, 기존의 1호점 굿마트, 2호점 금강식당, 3호점 배대가배박, 4호점 삼성캐스터, 5호점 농업회사법인(주)코아, 6호점(유)이벤트캐스터를 포함하여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구암동을 위한 나눔과 기부에 함께하게 되었다.

김영란 경암동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동참해주신 착한가게 사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이번을 계기로 지역 나눔공동체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주민 모두가 행복한 경암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동네 착한가게'는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부를 모아 매월 3만원 이상 기부하여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사업으로, 참여하는 가게에 대해선 '착한가게 현판'을 증정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세계 혜택도 주어진다.

/군산=김판곤 기자

황등면 '제일가정식단' 착한가게 3호점 현판식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황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제일가정식단(대표 조남길)을 착한가게 3호점으로 선정하고 지난 28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한다.

제일가정식단 조남길 대표는 "매월 조금씩이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황등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흔쾌히 기부에 동참했다"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더불어 행복한 황등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황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옥산 민간위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주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승원 황등면장은 "제일가정식단이 매월 정기적으로 나누는 기부금은 황등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자립지원과 생계·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며, "지역주민의 복지교육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혁신리더협회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와 (사)혁신리더협회가 지난 28일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과 관계자, 혁신리더협회 서성원 회장과 (주)캠스 김흥관 노동조합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최종길 상임위원, 페르소나SW 유승재 대표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체결한 업무협약의 목적은 상호 교류와 공동협력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시

대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미래신직업(창직) 및 학생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공동 연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은 "이번 혁신리더협회와의 협약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업무협약의 의의를 평가했다.

한편, 혁신리더협회는 창업 및 미래신직업 창업 지원 사업가 동반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꿈·환·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